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2022년 11월호

Vol.2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FoMo

Forced Mobilization

재단 소식

- 03 신임 이사장 인사말
“취임할 때보다 떠날 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 04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 06 일제강제동원 특별기획전시
『사라지는 목소리들』

역사관 소식

- 08 제24회 UN평화축제
‘포모와 함께 하는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소장유물

- 10 피해자 한용덕 유가족의 기증 유물

역사관 방문기

- 12 프랑스 친구들, 역사관을 찾다

작가 인터뷰

- 14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
정혜경 작가를 만나다

탐방기

- 16 조선 소(韓牛)의 발자취를 따라서

유관기관 소개

- 18 한민족 이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한국이민사박물관

역사관 사용설명서

- 20 2022년 사업 돌아보기
- 22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애독자란

- 23 사다리 타기



새로운 미래를 바라고 바라보다 「국화」 편

흰 국화는 지혜와 평화를, 노란 국화는 진실의 꽃말을 담고 있습니다. 가려진 역사 속 진실을 찾아 기리는 역사관의 소임을 나타내는 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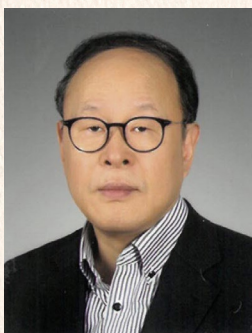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2년 11월 15일 통권 제28호 | **발행인** 심규선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반선영, 장민성, 추경아 | **디자인** 성준문화 |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신임 이사장 인사말 ——

“취임할 때보다 떠날 때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심규선입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맡았다고 말하고 싶으나,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단이 처해 있는 안팎의 상황이 결코 낙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재단이 해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추도, 위령, 복지, 연구, 문화 사업 등은 재단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고유사업도 매년 새롭게 진화하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 외부에서는 우리 재단의 위상을 크게 바꿀지도 모를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할 기관으로 우리 재단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우리 재단이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날이 온다면 재단의 업무 내용과 위상, 그리고 재단에 대한 관심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철저한 준비와 시행,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선두에 이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주 앉아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아무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란히 앉아 일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작으나마 때때로 성취를 이루고,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재단을 변화시킨 이사장으로서, 취임할 때보다 떠날 때 오히려 더 박수를 받는 이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01



04



05

01 관계자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02 종교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0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윤병일 단장이 추모의 말을 전하고 있다.
04 05 유족들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06 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공연을 하고 있다.



일제의 가혹한 강제동원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가
 지난 10월 13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행사는 종교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추모사, 뮤지컬 '마지막 소원' 추모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

재단은 행사를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원했다.

글 | 역사관 장민성

일제강제동원 특별기획전시 『사라지는 목소리들』

일본정부가 숨기고 지우려는 목소리
일본 근대산업유산 속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 일시 :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2월 18일
- 장소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층 중앙홀
- 주최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기획 : 민족문제연구소



일제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고 자국의 근대화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강제동원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인은 물론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까지도 일제의 산업화에 동원했습니다. 일본 근대산업 유산에 서 린이들의 아픈 과거를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숨기고, 지우고 있습니다.

과거 그곳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으로 매년 피해자 수는 줄어 들고 있지만 그들이 남긴 진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일제 침탈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알고,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24회 UN평화축제

포모와 함께하는 스텐실 에코백 만들기

부산시 남구 평화공원에서는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24회 UN평화축제가 열렸다. 역사관은 마스코트인 '포모' 디자인으로 스텐실 에코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에코백을 만들어 손주에게 주겠다는 어르신부터 엄마 손을 잡고 찾아온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글·사진 | 역사관 김정원



피해자 한용덕 유가족의
기증 유물

“오빠는 창문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다고 했어”

한용덕(韓龍惠, 창씨명: 西原龍惠)

1945년 6월 경, 일제에 의해 중국 만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대 소속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행방불명된 피해자이다. 행방불명된 시기나 지역은 알 수 없으며, 유골도 찾지 못하였다. 한용덕은 충청북도 청원군 민원면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결혼하여 딸이 한 명 있었으나, 돌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큰오빠가 징병 간다고 떠날 때, 아버지와 당숙들이 기차역까지 같이 갔어. 그때 오빠는 22살이었을거야. 기차 타고 출발하는데, 오빠는 창문 밖에 내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다고 했어.”

역사관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유물을 이관받아 소장 중이다. 위원회 이관 자료는 대부분 피해자 및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며,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돼 왔다. 또한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역사관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기증을 받아 전사·교육·연구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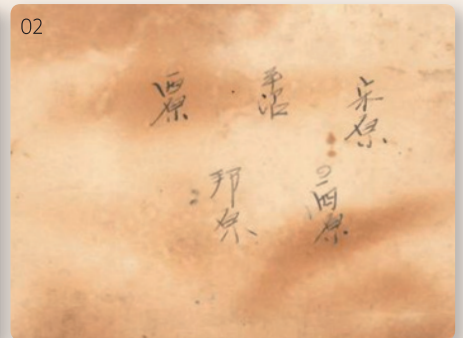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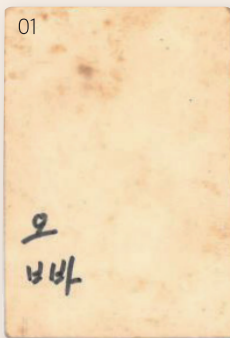
최근에 유족 분들이 역사관 내 ‘기억의 터’(위패관)를 방문했다가, 소장 중인 피해자의 사진이나 유품의 기증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증빙 자료의 사본을 제출했다가, 역사관에 다시 원본을 기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최근 원본의 기증이 늘어난 이유는 유족들의 나이가 고령에 접어들면서, 유족들이 직접 원본을 소장하는 것보다 역사관에서 영구 보존 및 활용해주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기증 유물도 유족의 위패관 방문 시 기증 접수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의 사진이다. 기증자 한덕희는 피해자 한용덕의 여동생으로 오빠의 사진 2매를 보관해오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 보존 등을 위해 역사관에 기증하였다.

< 유물 기증 문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팀 유물수집 담당 051-629-861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fomo.or.kr>) ▶ 소장자 ▶ 유물기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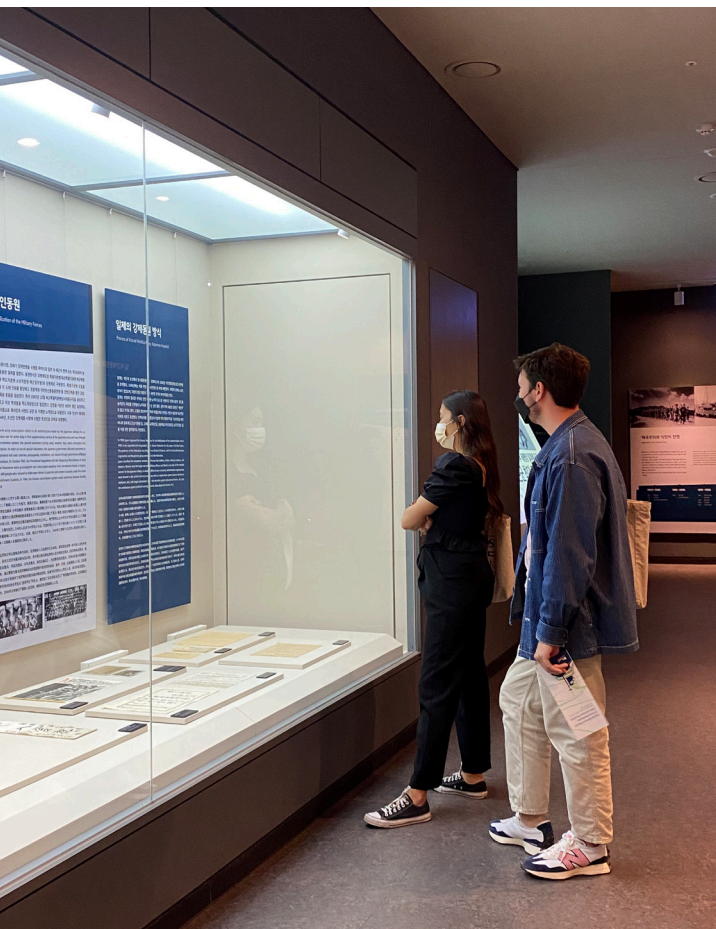


01. 한용덕의 개인사진(17세). 사진 뒷면에 '오빠'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02. 한용덕이 1941년에 지인들과 찍은 단체사진(18세). 사진 뒷면에는 5명의 창씨 성이 적혀 있다.

글 | 역사관 반선영

프랑스 친구들, 역사관을 찾다



2020년 2월 프랑스의 한 도시 리옹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들과 2년 만에 부산에서 재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한국이라는 작고 또 작은 이 나라를 좋아하고 관심 가져줘서 고마운 마음이다. 내가 아는 보통의 20대 청년들과는 달랐던 아이들. 이 둘을 만나서 프랑스 청년들은 정말 건강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으며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다. 그들을 다르게 생각했던 이유는, 박물관이나 역사 관련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 즐겨 방문한다는 것과 한국의 역사에 생각보다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리옹에서도 그들은 박물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었다. 그리곤 100프로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내게 설명해주었다. 그랬던 아이들이 한국, 부산에 왔다는 것이 나에겐 참 벅차도록 기뻐다. 오반과 줄리는 리옹에서부터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었다. 궁금증이 많았다. 나의 모자란 불어 실력 때문에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드디어 그들은 나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 내가 먼저 말해주지도,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곳의 주소를 찾아와 가고 싶다고 했다. 감격스러웠다. 저 멀리 살아가던 유러피안 두 명이 작디 작은 대한민국의, 그것도 30년의 역사가 뒤틀린 안타까운 민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말이다. 우리의 일제강점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 친구들 덕분에 존재하는 지도 모르고 있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한 셈이었다. 타국의 역사에, 그것도 아프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읽고 봐주었던 친구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와 몰랐던 이야기가 공존했다. 다시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저 당시에 태어나고 살았던 청년들이 참 애석했다. 내가 청년이라 그런가 요즘의 청년들도 참 녹록지 못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얼마나 더 고독하고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채웠다.

우리의 아픔과 한이 담긴 그 어렵고 복잡한 글들을, 오반과 줄리는 나보다 더 집중하여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읽었다.

부산에서의 짧은 여행동안 몇 없는, 소중한 목적지 중 하나를 이 전시관으로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역사를 진심으로 대해주어서 고맙다.

Merci d'être sérieux et honnêtes avec l'histoire (liée au Japon) de la Corée
한국의 (일본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진지함과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줄리님과 오반님, 그리고 그 사이 이지아님

글·사진 | 이지아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 정혜경 작가를 만나다



지난 27호에서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를 소개한 바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강제동원의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번 28호에서는 작가인 정혜경 위원을 만나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았다.



선생님은 일제 강제동원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 등에 대해 많은 논문과 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린 이들을 위한 『일제 강제 동원, 이름을 기억하라!』를 발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용 역사 동화책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책을 읽고 있는 편인데, 그동안 일제강제동원에 관한 책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봄날은 간다』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주제가 방적여공에 국한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이라는 주제가 매우 어려워서 초등학교생들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출판사의 제안을 받고 그림책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일정(日政) 시 피징용자 명부’를 활용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부란 것이 강제동원피해자의 이름을 모은 자료지요. 피해자의 이름을 통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 명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든 명부입니다. 명부는 크게 가해자가 만든 명부, 피해자가 만든 명부, 연합군이 남긴 명부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만든 명부는 가해의 사실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자 이름을 남기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연합군이나 피해자가 남긴 명부는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이므로 피해사실을 주관적으로 회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시 피징용자명부는 정부가 수합한 명부이므로 비교적 객관성을 추구한 명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부를 택한 이유는, 6.25전쟁의 참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동원의 증거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전에 전쟁을 맞아 교통과 통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이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정리한 소중한 명부입니다. 그래서 이 명부를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싶었습니다.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에서 식민지 재일 한인의 노동운동을 주제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11년간 조사과장으로 일하며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를 수집·정리하였다. 또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주하기도 했다.

‘일정(日政) 시 피징용자 명부’는 60여 년만인 2013년 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는데요, 발견하셨을 그 당시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또 왜 그동안 명부가 발견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명부는 외교부 주일한국대사관 실무자의 정성과 위원회 전문가의 전문성이 결합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명부를 작성해서 1953년에 한일회담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에 가지고 갔는데 막상 회담장에는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30만 명도 안되는 명부를 가지고 100만 명 운운하던 회의 안건의 근거로 내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측 회담 대표단은 명부를 일본에 두고 왔는데, 이후 존재를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당시는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기 이전이어서 대사관이 없었어요. 대사관 대신 주일한국대표부라고 있었는데, 그곳에 두고 온 것입니다. 이후 한일국교 정상화를 한 후 대사관을 설치했는데, 장소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명부는 계속 대사관 서고에 있었는데, 시일이 흐르면서 새로운 자료가 서고에 들어오자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겠지요. 그러다가 대사관이 이전하면서 서고의 자료를 모두 꺼내서 부서별로 재배치를 하게 되었는데, 명부는 어느 부서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료였어요. 그래서 대사관 실무자가 제게 밤에 전화로 문의를 해온 것이고, 제가 오일환 박사(전문위원)에게 확인을 요청하면서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그간 이러한 명부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연구자도 별로 없었는데, 윤이 좋게도 오일환 박사는 명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줄 수 있었지요. 이 명부가 전설 속의 명부라는 것을 알고, 정말 너무 놀랐고, 감격했지요. 자료란 것이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부 스스로 살아남아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명부를 생명력이 있는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일정(日政) 시 피징용자 명부’에는 강제징용 피해자(229,781명)뿐만 아니라 3.1운동 살상자 수(630명), 일본 관동대지진 희생자(290명)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또 이 명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명부는 언제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1953년에 모았는데, 당시에 일제강제동원 외에 3.1운동이나 관동대지진 희생자도 같이 신고를 받았어요. 일제강점기의 여러

피해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명부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3.1운동이나 관동대지진 피해자의 조사 결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통이나 통신의 제약으로 모든 지역의 조사 결과를 모을 수 없었으므로 결과가 적었다고 봅니다.

이 명부는 한국정부가 작성한 명부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부가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회담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니까요. 현재 한일 간에는 징용소송이라는 현안이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가 아닌 개인이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명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식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피해자들의 기억은 그간 피해자들이 살아온 중층적 경험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성이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제동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피해사건에서도 피해자성을 유지한다면, 같은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기억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는가를 궁금해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면, 가장 잘 이해하는 방향이 아닐지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유족(며느리)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바로 인권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피해자의 기억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품격있는 시민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 | 역사관 김민균, 추경아

이출되는 소



조선 소(韓牛)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선에서 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다. 조선의 농법은 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경작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가 들어 노역을 시키지 못할 때에는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그 가치가 높았다. 일본은 그러한 조선 소를 선호했다. 조선 소는 일본 소에 비해 골격이 좋고 성질이 온순해 노역을 시키기에 좋았던 데다 가격까지 저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 소의 가죽은 조직이 치밀하고 강해 피혁 원료로 사용하기에도 좋았다.



부산진 우시장 (현 부산진시장)

일본으로 보내는 많은 소는 우시장을 통해 거래했다. 원래는 동래 시장에서 거래하다 1916년 부산부 범일정에 부산진 우시장을 개설하면서 수많은 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다. 시장은 총면적 2,999평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거래고를 기록하였다.



부산이출우검역소(현 우암2동 주민센터)



부산진 우시장에서 거래한 소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산이출우검역소(移出牛檢疫所)를 통과해야만 했다. 부산이출우검역소는 1909년 경남 동래군 서면 우암리, 지금의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2동에 설치되었다.*

* 설치 당시에는 '수출우검역소'였으나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이출우검역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설치 당시 행정구역은 동래부 용수면 우암리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에 설치한 소 검역소는 6곳이었는데, 부산이출우검역소가 가장 규모가 컸다. 수출 비율이 높을 때는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검역 절차는 입검(入檢) - 예진(豫診) - 검역 - 해방(解放, 검역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순으로 엄격히 진행했다. 나아가 이러한 소 검역시스템은 일제가 조선인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우역혈청제조소(현 암남공원 일대)



검역을 강도 높게 진행했던 것은 일본 내로 우역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역 발생지=식민지(조선), 우역 피해지=식민지 모국(일본)라는 공식이 형성되어 조선은 '우역의 본가'라고 불려질 정도였다.(물론 우역은 조선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일본은 더 강력한 조치를 위해 1911년 우역혈청제조소를 부산부 사하면 암남동, 현 암남동 일대에 설립했다. 이곳에서 만든 혈청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만주, 중국까지 공급했다.

우시장에서 거래되어 검역소를 통과한 소들은 부산항으로 향했다. 조선 소는 1916년 원산, 성진 등에서 수출할 수 있기 전까지는 부산에서만 수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출된 소는 연간 4만 두 이상에 달했고, 일제강점기 동안에만 약 150만 두가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한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국 음식을 잘 못 먹는 외국인들도 불고기만큼은 최고라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한우와 같이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소가 그렇듯, 생활 곳곳에서 일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마치 밝은 달의 어두운 뒷모습처럼.

< 참고문헌 > 김연지, 「1890년대 부산항 生牛의 일본 수출 『通商彙纂』의 기록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연구』 53, 2016.
송봉수, 『일제시기 조선 生牛 이출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0.
심유정·최경업, 「근대 수의전문기관의 설립과 역사적 의미 -수출우검역소와 우혈청제조소를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10(1), 2011.
차철욱, 「일제강점기 조선소[朝鮮牛]의 일본수출과 관리시스템」 『역사와 경계』 88, 2013.

< 사진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농림축산검역본부



01

한민족 이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
www.incheon.go.kr/museum
032-440-4710



02



03



04



05

01 한국이민사박물관 상설전시실 02 한국이민사박물관 전경 03 특별전 중 '디아스포라 극장' 전시 장면 04 특별전시 2부에 소개된 사할린 한인들 05 특별전 중 5부 '세계 어느 곳에도 한인은 있다' 전시 장면

1902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첫 이민자들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제물포(지금의 인천)를 떠나 하와이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고국의 땅은 월미도였다. 현재 월미도에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세워져 있어 첫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알리고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첫 공식이민 이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간 노동 이민, 즉 미주이민 10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시와 재외동포들의 뜻이 모여 건립한 국내 유일의 이민사 전문 박물관이다.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현재 14,000여 점의 한국 이민 역사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4개의 상설전시실을 통해 소장 유물을 공개하고 있다.

2층부터 시작하는 제1전시실에 들어서면 인천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첫 공식이민의 과정과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한인들의 생활,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의 형성과정을 차례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첫 이민선이었던 깁럭호처럼 꾸민 전시실로 들어서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농장의 모습과 현지의 가옥을 재현해 놓았다.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미주 이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인들의 고단한 생활과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의 이민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식 이민 이전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간도,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민, 일제강점기 재일동포들의 이야기,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들의 입양 이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노동이 필요했던 나라로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의 이야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에서 못다한 이민사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매년 다른 주제로 이민사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2020년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2021년 <남미의 한인

들> 등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4회의 특별전시를 공개한 바 있다. 올해는 특별히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전세계 한인 이민의 역사와 현황을 사진으로 담은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돌아오다> 전시를 준비하였다.

이번 특별전시는 기존 지하 특별전시실 이외에도 야외 가설구조물을 만들어 전시공간을 확장하였다. 야외전시공간에서는 재외동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결성한 다양한 문화 예술 단체와 코리아타운의 모습,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동포들, 그리고 그들의 모국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하고, 최근 늘고 있는 귀환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지하의 전시 공간에서는 한인 이민 역사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공식이민 이전 최초의 이민이라고 불리는 간도, 연해주 지역의 이민 이야기부터 공식이민,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재외동포 사회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다.

이 시기 한인들의 여러 이야기 중 사할린 동포 사회의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는데, 당시 사할린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일제의 태평양 전쟁 준비 기지로 활용되어 사할린의 탄광과 벌목장에서 일할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한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다.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는 2부에 이어 4부와 5부에서도 이어져서 해방이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다시 아픔을 간직한 채 한인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과, 1990년부터 진행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 이야기가 소개된다. 이 외에도 디아스포라 극장에서는 이민자들의 삶을 소재로 만든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앞으로도 이민사 관련 전시와 함께 학술회의, 토크콘서트,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글 | 한국이민사박물관 제공

2022년 사업 돌아보기

01



○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역사 왜곡 대응 전시 ○

- 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 내용 : 전시를 통해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중 조선인 강제동원이 확인된 7곳의 실상과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역사 왜곡 문제를 조명했다.

02



○ 일제강점기 조선인 광산 노무자 주제 전시 ○

- 기간 : 8월 ~ 12월
- 내용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조선인 광산 노무자의 삶을 재구성했다.

03



○ 독립기념관과 함께한 독립운동가 재조명 전시 ○

- 기간 : 1월 ~ 12월
- 내용 : 매달 보훈처가 선정한 독립운동가 소개를 바탕으로 독립기념관과 협업해 전시로 구성했다.

04



○ 일제 강제동원 주제 시민강좌 ○

- 기간 : 5월 ~ 6월(1학기), 10월 ~ 11월(2학기)
- 내용 : 국가폭력과 인권,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 학생 동원 등 일제 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강연을 16차례 개최했다.

05



일제강점기 주제 인문학특강

- 기간 : 8월 ~ 9월
- 내용 : 근세 일본인들의 조선관, 일제강점기 여성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5차례 개최했다.

06



일제 강제동원 주제 인형극

- 기간 : 3월 ~ 11월
- 내용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형극이라는 방식을 활용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 일제 강제동원 역사를 쉽게 전달했다. 삼일절,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는 추가 상연했다.

07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위패 안치

- 기간 : 4월
- 내용 : 1942년 2월 발생한 조세이 탄광 사고의 사망자 수는 180여 명, 사망자 중 조선인은 135명. 조세이(長生, 장생)라는 탄광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은 조선인은 사고로 억울하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

08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가족 초청 국내 추도순례

- 기간 : 7월
- 내용 : 유가족을 초청해 2박 3일간 추도순례를 다녀왔다. 순례 장소는 부산과 제주도 일원으로 피해 가족의 넋을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올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사다리 타기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역사관 소장유물을 사다리를 따라 찾아보세요!

< 아시아·태평양 전쟁 >

1941년 12월 7일 일제는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해 있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 기지를 공격하였다. 그 여세를 몰아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 호주 등지까지 파죽지세로 쳐들어갔다. 미국·영국 등 연합군은 일제가 점령한 태평양 연안 섬과 동남아시아 수복을 위해 일제에 대응하면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아시아의 인적·물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시켰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1

천인침

2

일본군 군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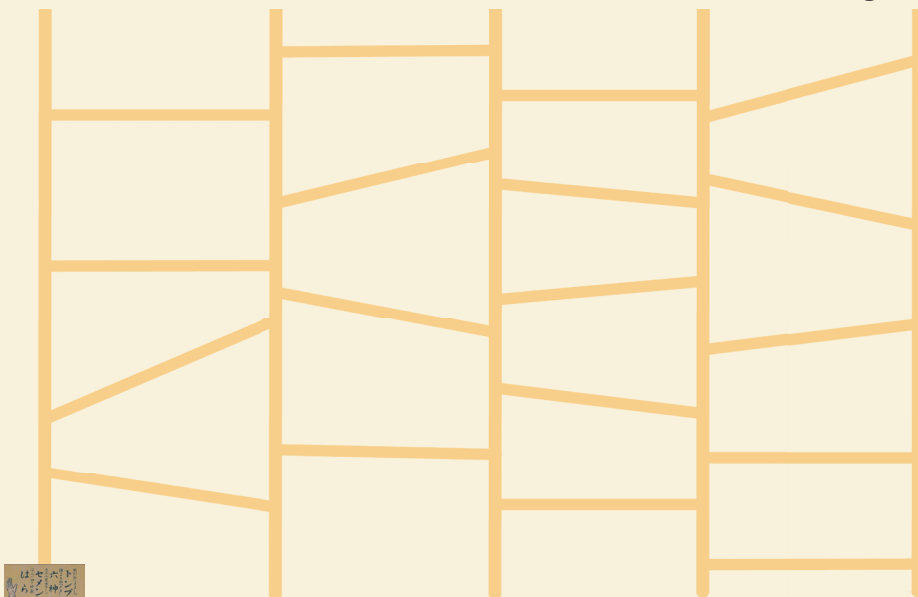
채권

4

봉공대

5

아시아·태평양 전쟁
홍보 포스터



결전을 독려하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홍보 포스터로 식생활 관련 공익광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쟁에 출정한 군인의 무사귀환과 무운을 기원하며 한 장의 천에 천 명의 여성들이 붉은실로 한 땀씩 수를 놓은 것이다. 센닌바리(せんになり)라고 읽으며, 일본에서 유래되었다.



군표는 전쟁 지역이나 점령 지역에서 군의 작전 행동상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한 특별한 화폐이다. 이 군표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일제가 점령지에서 사용한 군표이다.



일본정부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전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액면 금액을 할인하여 발행하고 그 차액으로 이자를 대신하는 할인 채권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에 입대하면 받는 자루로 훈장, 천인침 등을 보관했다.

“오늘도 그립습니다”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에 참가한 유가족이
슬퍼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